



## 두 ‘아줌마’ 놀다 과학과

《과학자와 놀자!》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페이지는?

아이슈타인 할아버지가 혀를 쭉 내밀고 있는 165쪽이다. 적어도 김성화 권수진 씨 주변의 아이들은 아이슈타인의 장난기 가득한 사진을 좋아해 그 페이지가 너털너털해질 정도였다. 과학자는 항상 근엄하고 뭔가 고민거리를 잔뜩 짊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에게, 혀를 쭉 내밀고 장난스런 표정을 짓고 있는 과학자 사진이 꽤나 재미있었던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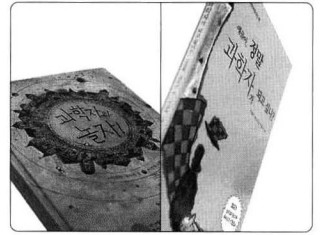
“과학에 대해 잘못 알려진 인식을 바로잡아주고 싶었어요. 과학의 참모습을 모르는 아이들이 많은데, 과학은 철학과 같은 거지요.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진실을 밝혀낸 과학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보면 자연스럽게 과학의 참모습에 대해 아이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책을 쓰게 되었죠.”

《과학자와 놀자!》는 창작과비평사가 주관하는 제6회 ‘좋은 어린이책’ 원고 공모 기획 부문 대상 수상작으로, 과학

자들의 일상을 재미있게 들려줌으로써 아이들이 과학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김성화·권수진 씨의 기획의도이다.

《과학자와 놀자!》를 통해 김성화·권수진 씨는 아이들에게 자연에 대해 생각해보며 살아갈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컴퓨터, 장난감 말고도 하늘, 별, 이런 다른 세계를 통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 두 사람의 생각이었고, 그 느낌을 아는 아이들이 늘어날수록 우리나라 과학의 미래도 밝다는 생각이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저희들이 달려든 것인데, 사실 생계 문제를 저희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입장이었다면 하기 힘든 일이었죠. 아직은 과학 쪽 시장이 너무 작거든요. 그나마 나와 있는 책들도 저희가 보면 대부분 잡다하고 상식 수준을 나열한 내용인데, 과학 쪽 책으로 분류돼 있어 아쉬움이 많죠. 그렇지만 차차 나아지리라 생각해요. 저희가 처음 책을 내놓았던 97년 당시만 해도 과학 관련 어린이책 시장은 암담



했지만, 요즘은 이렇게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작업도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보편적인 일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책으로까지 집필 범위를 넓혀볼 계획이에요.”

김성화·권수진 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단짝이었고 대학도 함께 다녔다. 학교 때부터 같이 있었던 시간을 감안하면 오히려 남편이나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있는 사이. 머리말도 한 사람이 운을 떼면 다음 사람이 그 다음 문장을 바로 이어 쓸 수 있을 정도로 두 사람의 호흡은 일치한다. 딱히 누구의 말이라고 구분할 필요도 없이, 같은 생각, 즉 같은 코드로 들어맞는 파트너. 함께 작업하는 단점을 굳이 말한다면 한 명이 슬럼프에 빠진다거나 기분이 우울하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정도.

“1997년도에 첫 책을 함께 내고, 아기도 낳고 쉬엄쉬엄

작업을 해오다 2000년에 작업실을 얻으면서 본격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우리 작업은 한마디로 인문학과 과학의 접목을 시도하는 겁니다. 대학에 입학해서 과학사라든가, 과학의 배경에 대해 먼저 배웠더라면 훨씬 더 전공 공부에 열심이었을 거예요. 요즘 아이들에게 과학이 재미있는 학문이라는 걸 일깨워주고 싶어요. 그러자면 아무래도 저희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야겠죠.”

어린이 책 시장이 급격히 넓어지고 있어, 그에 따른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오지만 이들은 어린이 책 출판의 미래에 대해서도 낙관적이다. 처음엔 창작 동화 시장이 열악했으나 지금은 많이 커졌듯, 더 나은 쪽으로 발전해 나가리라 믿는다.

또한 아동물 시장의 급격한 확대와 더불어 일러스트를 그리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는데, 기획 단계에서부터 함께 고민하는, 어린이 책에 대한 철학이 있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린이 책은 주로 부모님이 골라서 아이들에게 읽으라고 강요하는 면이 있어요. 그보다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책을 읽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아이들 스스로가 선택한 책을 두고 두고 읽거든요. 책 자체에 먼저 가까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자면 좋은 책에 대한 리뷰가 잘 되어야할 텐데, 현재 어린이 책 리뷰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김성화·권수진 씨는 서평자들이 의무감으로만 쓰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성의 없는 리뷰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책도 제대로 안 읽어보고 지면 채우기식으로 쓴다면 독자들에게 정보도 되지 않고, 오히려 지면 낭비일 뿐이라는 생각이다.

“어른들도 어린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인물 읽는 거 이상으로 감동을 받거든요. 어린이책을 습관적으로 읽는 습관을 들이면, 아니 읽다보면 자연스레 좋아서 읽게 될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말이지요(웃음).”

두 사람은 현재 생물 관련 원고를 쓰고 있다. 생태계, 진화, 먹이사슬에 관한 이야기로 올해 선보일 예정이다. **주표**

취재 양선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과학자와 놀자!》를 통해 김성화·권수진 씨는 아이들에게 자연에 대해 생각해보며 살아갈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었다.